

I 한문을 만나다

01 한문의 첫걸음

실력 키우기

15 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①
06 ③ 07 ④ 08 **서답형**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용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우리말을 더욱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01 한자의 형태는 중국 한(漢)나라 때 지금과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갖추었다.
- 02 한자의 3요소는 모양(형), 음, 뜻(의)이다.
- 03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로는 상형, 지사, 회의, 형성 등이 있다.
★ ① 囚는 회의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이다.
② 상형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③, ④ 회의는 글자의 뜻과 뜻이 합쳐 새로운 뜻을 내는 원리이다.
- 04 ㄷ, ㅁ은 형성자이다.
★ ㄱ. 畝 = 水(읏) + 田(읏) → 회의
ㄴ. 丘: 언덕의 모양을 본떠 만들. → 상형
ㄷ. 吐 = 口(읏) + 土(음) → 형성
ㄹ. 甘: 추상적인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냄 → 지사
ㅁ. 芳 = 艹(읏) + 方(음) → 형성
- 05 ㄱ. 음(音), ㄴ. 한자(漢字)
★ ㄷ. 한글, ㄹ. 언덕은 순우리말이다.
- 06 訴訟(하소연할 소, 송사할 송)
★ ① 警察 - 경찰
② 醫師 - 의사
④ 無難 - 무난
⑤ 治療 - 치료
- 07 尖(첨) 뾰족하다
★ ① 穴(혈) 구멍
② 析(석) 가르다
③ 畚(답) 논
⑤ 惑(혹) 미혹하다
- 08 **인정 답안** 위의 세 가지 내용 중 2개 이상을 서술할 시 정답으로 인정함.

02 한문으로 만나는 세상

실력 키우기

21 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②
06 ③ 07 ③ 08 **서답형** 이 포스터 속 ‘야행’은 ‘밤에 다닌다’는 뜻으로, ‘밤에 열리는 행사’라는 긴 표현 대신 두 글자로 ‘밤 축제’의 특징을 간명하게 드러냈다.

- 01 ① 길(정) - 程 ② 신령(령) - 靈
③ 지혜(혜) - 慧 ④ 층계(단) - 段
- 02 周(주) 두루
★ ② 板(판) 널
③ 譯(역) 번역하다
④ 邊(변) 가
⑤ 揮(휘) 휘두르다
- 03 靈感(신령 령, 느낄 감)은 신령스러운 예감이나 느낌을 말한다.
★ ① 周邊(주변)
② 智慧(지혜)
④ 過程(과정)
⑤ 記錄(기록)
- 04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자유롭게 무료로 국역본과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 05 한자 문화권: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역사적으로 한자가 통용되어 온 지역을 통칭하는 말.
- 06 畜(축) 쌓다
★ ① 智(지) 지혜
② 程(정) 길, 한도
④ 飜(번) 뒤집다
⑤ 簡(간) 대쪽
- 07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마라.
- 08 夜行(밤 야, 다닐 행): 밤에 다닌다. → 밤에 열리는 행사라는 표현 대신 두 글자로 간결하게 표현함.
인정 답안 ‘밤’과 ‘다니다’, ‘가다’, ‘돌아다니다’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설명하면 정답으로 인정함.

I 대단원 총괄 평가

24 - 25 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②
06 ⑤	07 ⑤	08 ③	09 ①	10 ④
11 ⑤	12 ②			

01 한자의 3요소: 象(모양) - 코끼리(뜻) - 상(음)

★ 上(상) 위

02 智(지) 지혜

★ ㄱ. 護(호) 보호하다

ㄴ. 囚(수) 가두다

ㄷ. 稱(칭) 일컫다

ㄹ. 錄(록) 기록하다

03 記錄(기록할 기, 기록할 록):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04 沓(논 답)은 水(물 수)의 뜻과 田(밭 전)의 뜻이 합쳐져 만들어진 회의자이다.

★ ㄱ. 穴(구멍 혈)은 동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자이다.

ㄴ. 尖(뾰족할 첨)은 大(큰 대)의 뜻과 小(작을 소)의 뜻이 합쳐져 만들어진 회의자이다.

ㄷ. 本(근본 본)은 木(나무 목)의 뿌리 부분에 점이나 선을 그어 추상적인 뜻을 표현한 지사자이다.

ㄹ. 洲(물가 주)는 水(물 수)의 뜻 부분과 州(고을 주)의 음 부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형성자이다.

ㅁ. 吐(토할 토)는 口(입 구)의 뜻 부분과 土(흙 토)의 음 부분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형성자이다.

05 지사(指事)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뜻을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本(근본 본), 甘(달 감) 등이 있다.

06 洲(물가 주)와 吐(토할 토)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들을 결합하되 일부는 뜻, 일부는 음을 나타낸 형성자이다.

※ 상세 해설은 4번 풀이 참조

07 한자 문화권의 국가들은 한자를 사용한 어휘나 한자와 관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읽는 방식이 달라 말로 소통하기는 힘들다.

08 한자 문화권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있다.

09 한자 문화권은 한자가 통용되어 온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있다.

★ ② 현대에도 동음이의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③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해왔다.

④ 한자 문화권 국가들은 과거부터 그 문화를 공유해오고 있으며 꾸준히 상호 작용을 해온 국가들을 일컫는 말로 그 범위가 늘어나거나 국가가 늘고 있지는 않다.

⑤ 한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의 국가들이 필요에 의해 꾸준히 만들어왔으며 한자의 사용이나 생성의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중주국이라고 하기 어렵다.

10 ㄹ. 翻譯(번역):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

★ ㄱ. 科程(과정): 일이 되어 가는 경로.

ㄴ. 發揮(발휘): 재능, 능력 등을 떨치어 나타냄.

ㄷ. 手段(수단): '1'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 '2'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꾀.

ㅁ. 看板(간판): '1'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등을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 '2' 대표하여 내세를 만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간판선수(看板選手): 어느 팀에서 대표로 내세를 만한 선수.

★ ㄱ. 科程(과정): 일이 되어 가는 경로.

ㄴ. 發揮(발휘): 재능, 능력 등을 떨치어 나타냄.

ㄷ. 手段(수단): '1'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 '2'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꾀.

ㄹ. 翻譯(번역):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

12 發揮(펼 발, 휘두를 휘):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냄.

★ ㄱ. 科程(과정): 일이 되어 가는 경로.

ㄷ. 手段(수단): '1'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또는 그 도구. '2'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꾀.

ㄹ. 翻譯(번역): 어떤 언어로 된 글을 다른 언어의 글로 옮김.

ㅁ. 看板(간판): '1' 기관, 상점, 영업소 따위에서 이름이나 판매 상품, 업종 등을 써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걸거나 붙이는 표지(標識). '2' 대표하여 내세를 만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II 성어, 이야기를 품다

03 배움과 우정

실력 키우기

37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② 07 ② 08 **서답형** 맹자의 어머니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온 맹자를 보고 짜던 베를 끊어 훈계한 데서 유래한 말로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다.

01 戒(계) 경계하다

- ★ ① 牙(아) 어금니
- ② 査(사) 조사하다
- ③ 螢(형) 반딧불이
- ④ 篤(독) 도탑다

02 莫逆(막역):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함.

- ★ ① 級友(급우): 같은 학급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
- ② 敦篤(돈독): 도탑고 성실함.
- ③ 畏友(외우):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벗.
- ④ 主導(주도): 주체적으로 이끌거나 지도함.

03 管鮑之交(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사귄.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 ④ 金蘭之契(금란지계): 쇠보다 날카롭고 난초같이 향기로운 맺음.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
- ★ ① 無難(무난): 별로 어려움이 없음.
- ② 討論(토론):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세워 치고받으며 논 의함.
- ③ 調查(조사): 내용과 실정을 명확히 알기 위해 자세하게 살펴봄.
- ⑤ 螢雪之功(형설지공): 고생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

04 不恥下問(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 배우기를 좋아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물음.

- ★ ① 管鮑之交(관포지교):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 ② 斷機之戒(단기지계):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를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
- ④ 伯牙絕絃(백야절현):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 ⑤ 金蘭之契(금란지계):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

05 溫故知新(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앎’으로 풀이되며 이때 溫은 ‘익히다’의 뜻이다.

06 허사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현하지 않고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之가 허사에 해당한다.

- ★ 실사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현하며 단독으로 의미를 가지는 한자이다. 金, 蘭, 契가 실사에 해당한다.

07 金蘭之契(금란지계)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다. 금란지계는 쇠보다 날카롭고 난초같이 향기로운 맺음을 뜻하는 말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말한다.

- ★ ① 斷機之戒(단기지계): (짜던) 베를 끊는 경계라는 뜻으로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를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 돌아오자, 그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훈계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 ③ 螢雪之功(형설지공): 반딧불·눈과 함께 하는 노력이라는 뜻으로, 고생을 하면서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 『진서』의 「차운전」, 「손강전」에 나오는 말로, 진나라 차운(車胤)이 반딧불을 모아 그 불빛으로 글을 읽고, 손강(孫康)이 가난하여 겨울밤에는 눈빛에 비추어 글을 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④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배움을 이르는 말이다.

- ⑤ 不恥下問(불치하문):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배우기를 좋아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물음을 이르는 말이다.

08 斷機之戒(단기지계): 베를 끊는 경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를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

[유래] 맹자가 어릴 적에 배움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맹자의 어머니가 베를 짜다가 물었다. “배움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맹자는 “전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맹자의 어머니가 칼로 그 베를 잘랐다. 맹자가 두려워하며 그 이유를 물으니 맹자의 어머니가 말하길, “네가 학문을 그만둔 것은 내가 이 베를 자르는 것과 같다. 무릇 군자는 학문을 배워 이름을 날리고, 물어서 앎을 넓혀야 한다. 이 때문에 머무를 때 편안할 수 있고, 행동할 때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지금 네가 학문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의 부림을 면하지 못하며, 화환(禍患: 재앙과 환난)에서 멀어질 수 없다.” ... 맹자가 두려워하여 낮 밤으로 배움에 힘쓰는 것을 쉬지 않고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섬겨 마침내 천하의 이름난 선비가 되었다. 군자가 말하기를, “맹자 어머니는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였다. ...
—『열녀전(列女傳)』

인정 답안 맹자의 어머니와 맹자 간에 있었던 사건을 서술하고, 그 속뜻이 담겨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함.

04 재미있는 이야기

실력 키우기

45쪽

- 01 ② 02 ③ 03 ① 04 ① 05 ②
06 ④ 07 ③ 08 **서답형**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
내 등용문에 올랐다.

01 鶴(학) 학

- ★ ① 株(주) 그루
③ 翁(옹) 늙은이
④ 群(군) 무리
⑤ 潛(잠) 잠기다

02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 ★ ① 용문에 오름.
→ 登龍門(등용문)
② 변방 노인의 말.
→ 塞翁之馬(새옹지마)
④ 여러 닭 가운데서 하나의 학.
→ 群鷄一鶴(군계일학)
⑤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守株待兔(수주대토)

03 塞翁之馬(새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 ②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③ 群鷄一鶴(군계일학): 여러 닭 가운데서 하나의 학.
→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④ 守株待兔(수주대토):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⑤ 畫蛇添足(화사첨족):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04 수주대토(守株待兔)는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즉, 기회를 기다리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어, 고정된 방법이나 생각에만 의존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말이다. 따라서 수주대토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05 塞翁之馬(새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 ① 守株待兔(수주대토):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③ 登龍門(등용문): 용문에 오름.
→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함.
④ 群鷄一鶴(군계일학): 여러 닭 가운데서 하나의 학.
→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⑤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06 群鷄(군계): 여러[수식어] + 닭[피수식어] → 수식 관계

- ★ 수식 관계는 '수식어 + 피수식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① 주술 관계는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② 술목 관계는 '서술어 + 목적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③ 술보 관계는 '서술어 + 보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⑤ 병렬 관계는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07 畫蛇添足(화사첨족):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 蛇足

- ★ ① 登龍門(등용문): 용문에 오름.
→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함.
② 塞翁之馬(새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④ 守株待兔(수주대토):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⑤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08 登龍門(등용문)은 용문에 오른다는 뜻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성어는 주로 중요한 기회나 승진, 성공적인 도약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 ★ [사용 상황]
- 어려운 시험이나 경쟁을 통과할 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중요한 입사 시험이나 경쟁에서 승리하여 상위 직책에 오르는 경우, 또는 학문적으로 큰 성취를 이룰 때 쓰인다.
- 성공적인 도약이나 큰 변화의 순간: 큰 업적을 이루거나 중요한 자리에 오를 때. 예를 들어, 창업자가 큰 사업을 일으키거나, 예술가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쓰인다.
- 성공적인 전환점: 학업, 직업, 개인적 성취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등용문은 그 도전의 결과로 큰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활용된다.

인정 답안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딘 후에 결국 성공(출세)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함.

05 역사 속으로

실력 키우기

53쪽

- 01 ④ 02 ① 03 ③ 04 ③ 05 ②
06 ① 07 ③ 08 **서답형** 어제까지 오기로 했던
택배가 함흥차사구나!

01 朋友(붕우): 벗+벗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임. - 병렬 관계

- ★ ① 水泳(수영): 물에서 헤엄치다. - 술보 관계
② 避難(피난): 재난을 피하다. - 술목 관계
③ 戰略(전략): 전쟁의 방략. - 수식 관계
⑤ 斥和(척화): 화친을 물리치다. - 술목 관계

02 抵抗(저항): 막다+막다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임. - 병렬 관계

- ★ ① 生死(생사): 삶과 죽음. - 병렬 관계
② 斥和(척화): 화친을 물리침. - 술목 관계
③ 避難(피난): 재난을 피함. - 술목 관계
④ 浸水(침수): 물에 잠김. - 술보 관계
⑤ 潛水(잠수): 물속으로 잠겨 들어감. - 술보 관계

03 洪水(홍수):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불 은 물.

- ★ ① 水準(수준): 사물의 가치나 질 따위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
② 封建(봉건): 세력이 있는 사람이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토지와 백성을 사유하던 일.
④ 戰略(전략):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나 책략.
⑤ 浸水(침수): 물에 잠김.

04 男負女戴(남부여대): 남자는 짐을 지고 여자는 짐을 인다는 뜻으로, 가난하거나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 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背水之陣(등 배, 물 수, 어조사 지, 진 칠 진): 물을 등지고 치는 진.

- ★ ① 差(차) 다르다
③ 桃(도) 복숭아
④ 馬(마) 말
⑤ 陳(진) 베풀다
※ 陣(진)과 陳(진)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06 四面楚歌(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 ★ ② 咸興差使(함흥차사): 함흥으로 보낸 차사라는 뜻으로,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에 있을 때, 태종이 보낸 차사를 죽이거나 잡아 가두어 돌려보내지 않았던 데서 유래하였다.

- ③ 指鹿爲馬(지록위마): 사실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을 이르는 말이다. 진(秦)나라 환관 조고가 황제 호해를 속여 사실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데서 비롯하였다.

- ④ 桃園結義(도원결의): 복숭아나무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는다는 뜻으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 생사를 같이할 것을 약속함을 이르는 말이다. 중국 삼국 시대의 유비, 관우, 장비가 나라를 어지럽힌 황건적을 소탕하고자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고 뜻을 함께한 데서 유래하였다.

- ⑤ 兔死狗烹(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 개도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춘추 시대 월나라의 범려와 문종은 나라에 공을 세우고 벼슬을 받았다. 범려는 월나라의 임금 구천을 믿지 않고 월나라를 탈출하면서 문종에게 편지하기를 “토끼를 다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고 하여 피신하도록 충고하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07 兔死狗烹(토사구팽):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 박하게 버리는 경우.

- ★ ①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 指鹿爲馬(지록위마)
②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
→ 四面楚歌(사면초가)
④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맞섬.
→ 背水之陣(배수지진)
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생사를 같이 할 것을 약속함.
→ 桃園結義(도원결의)

08 함흥차사(咸興差使)는 함흥으로 보낸 차사라는 뜻으로, 심 부름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이른다.

- ★ [사용 상황]
- 기다려야 할 일이 오래 지체될 때: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거나 일을 끝내지 않고 지체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기대했던 일이 오래 해결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학교나 회사에서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계속 결정을 미루거나 지연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다.

인정 답안 성어가 들어가 있으며 오지 않거나 늦는다는 상황이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함.

II 대단원 총괄 평가

56-57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③	05 ①
06 ②	07 ①	08 ⑤	09 ⑤	10 ④
11 ④	12 서답형	•성어: 금란지계 •속뜻: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		

01 실사: 한자의 뜻이 가리키는 대상이나 동작이 있는 글자를 말한다. → 管, 鮑, 交

★ 허사: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현하지 않고 문법적 의미만 가짐. → 之

02 潛龍(잠룡): 물속에 잠겨있는 용. - 수식 관계

④ 蜜語(밀어): 달콤한 말. - 수식 관계

★ ① 浸水(침수): 물에 잠김. - 술보 관계

② 交友(교우): 친구를 사귀. - 술목 관계

③ 避難(피난): 재난을 피함. - 술목 관계

⑤ 登山(등산): 산에 오름. - 술보 관계

03 門前薄待(문전박대)

★ ① 滅門之禍(멸문지화): 한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

② 天高馬肥(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 가을철을 이르는 말.

③ 肝膽相照(간담상조): 간과 쓸개를 서로 내비침. 매우 가까운 관계.

⑤ 男負女戴(남부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임. 재난을 피하여 여기저기로 옮겨가는 모습.

04 咸興差使(함흥차사): 함흥으로 간 차사.

→ 심부름 가서 오지 않거나 늦게 옴.

★ 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 群鷄一鶴

②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함 → 登龍門

④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배움. → 溫故知新

⑤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 伯牙絕絃

05 水泳(수영), 潛水(잠수), 洪水(홍수), 背水之陣(배수지진)

★ ② 木(목) 나무

③ 之(지) 어조사

④ 馬(마) 말

⑤ 門(문) 문

06 ① 金蘭之契(금란지계) ※ 蘭(란) 난초
④ 斷機之戒(단기지계) ※ 戒(계) 경계하다

07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관련된 성어는 塞翁之馬(새옹지마)이다.

★ ② 守株待兔(수주대토):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되지도 않을 일을 고집하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③ 桃園結義(도원결의): 복숭아나무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음. →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 생사를 같이할 것을 약속함.

④ 吳越同舟(오월동주):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앎.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배움.

08 글은 群鷄一鶴(군계일학)에 관한 내용이다. 군계일학은 여러 닭 가운데서 하나의 학이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이다.

★ ① 指鹿爲馬(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 위 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② 管鮑之交(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사귀.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③ 四面楚歌(사면초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④ 泣斬馬謖(읍참마속):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을 이르는 말.

09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愚公移山(우공이산)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한다.

10 四面楚歌(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말한다.

11 不恥下問(불치하문)은 배우기를 좋아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물음을 말한다.

★ ① 畫蛇添足(화사첨족)

② 管鮑之交(관포지교)

③ 斷機之戒(단기지계)

⑤ 塞翁之馬(새옹지마)

12 한자 카드를 통하여 만들 수 있는 성어는 金蘭之契(금란지계)로,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을 이르는 말이다.

III 말 한마디에 지혜를 담다

06 생활의 지혜

실력 키우기

69쪽

-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② 07 ③ 08 **서답형** 이 문장은 “한 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을 가진 글로 사람의 마음을 알기가 그만큼 어려우니 사람의 겉모습이나 표정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

01 積(적) 쌓다 ↔ 墮(휴) 무너지다

- ★ ① 飛(비) 날다
② 策(책) 꾀
③ 塔(탑) 탑
④ 腸(장) 창자

02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孤掌難鳴(고장난명)으로 혼자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말한다.

03 積功之塔(적공지탑)은 ‘공을 쌓은 탑’이라고 풀이한다.

★ 여기서 ‘之’는 ‘~하는’으로 풀이된다.

04 積功之塔 不墮(적공지탑 불휴): 공을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 정성을 다한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음.

05 鳥飛(오비): 까마귀가[주어] + 날다[서술어]

★ 주술 구조는 ‘주어 + 서술어’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06 寧測十丈水深(녕측십장수심): 차라리 열 길 물 깊이는 헤아릴 수 있다.

07 難測一丈人心(난측일장인심): 한 길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08 寧測十丈水深, 難測一丈人心.(녕측십장수심 난측일장인심)은 차라리 열 길 물 깊이는 헤아릴 수 있으나 한 길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매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속담으로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가 있으며 사람의 마음을 겉모습이나 표정 또는 드러나는 몸짓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제를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07 말의 무게

실력 키우기

77쪽

- 01 ① 02 ④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③ 08 **서답형** 心無主者는 ‘마음에 주관인 없는 사람’이라고 풀이하며 이는 내면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한다. 내면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핵심이 없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01 痛(통) 아프다

- ★ ② 張(장) 배풀다 ③ 宣(선) 배풀다
④ 割(할) 베다 ⑤ 妄(망) 망령되다

02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寸鐵殺人(촌철살인)으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말한다.

03 一語傷人(일어상인): 한 마디 말이[주어] + 상하게 하다[서술어] + 남을[목적어] - 주술목 구조

04 痛如刀割(통여도할):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 풀이 순서는 痛 - 刀 - 割 - 如

05 橫說豎說(가로 횡, 말쑥 설, 세로 수, 말쑥 설)

06 內不足者, 其辭煩, 心無主者, 其辭荒(내부족자 기사번, 심무주자 기사황): 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번잡하고, 마음에 주관인 없는 사람은 그 말이 거칠다. → 내면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핵심이 없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07 ‘內不足者’에서 足(족)은 ‘만족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自足(자족): 스스로 만족함.

★ ① 手足(수족): 손과 발.

② 失足(실족): 발을 헛디딤.

④ 長足(장족): 긴 발.

⑤ 義足(의족): 만들어 붙인 발.

08 心無主者는 ‘마음에 주관인 없는 사람’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관은 자신만의 견해나 관점을 의미한다. 마음에 주관인 없는 사람은 사람이나 일을 대할 때 자신만의 분명한 생각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주관인 없으면 말이 횡설수설 번잡해 진다.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글의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08 저마다의 가치

실력 키우기

85쪽

- 01 ② 02 ⑤ 03 ③ 04 ① 05 ①
06 ③ 07 ④ 08 **서답형** 無名之草는 '이름 없
는 풀'이라는 뜻으로, '존재의 의미가 없는 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1 擇(택) 가리다

- ★ ① 祿(록) 복 ③ 壤(양) 땅
④ 苟(구) 진실로 ⑤ 汚(오) 더럽다

02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角者無齒(각자무치) 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이나 재주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없음을 말한다.

03 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태산 불양토양 고능성기 대): 태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 다.

- ★ '太山, 不讓土壤'은 주술목 구조이므로 주어, 서술어, 목적
어 성분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함.

04 故(고) 연고

- ★ ② 深(심) 깊다 ③ 海(해) 바다
④ 河(하) 물 ⑤ 地(지) 땅

05 不擇(아니 불, 가릴 택)

- ★ 不(불)은 초성이 'ㄷ', 'ㄹ' 인 한자 앞에서는 '부'로 읽는다.

06 天不生無祿之人(천불생무록지인): 하늘은 복 없는 사람 을 낳지 않는다. '無祿之人'은 '복 없는 사람'이므로 '祿- 無-之-人' 순서로 풀이됨.

07 地不長無名之草(지부장무명지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 ★ '地不長'에서 '장'은 '기르다'의 의미임.

08 無名之草(무명지초)는 '이름 없는 풀'이라는 뜻이다. 이 문 장에서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나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명지초'란 '존재의 의미가 없는 풀'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글의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III 대단원 총괄 평가

88-89쪽

- 01 ② 02 ① 03 ② 04 ④ 05 ②
06 ③ 07 ② 08 ③ 09 ⑤ 10 ④
11 ⑤ 12 **서답형** 하해가 깊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작
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 포용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01 ㉠: 飛上(비상)

㉡: 環境(환경)

㉢: 首肯(수긍)

- ★ ① ㉠: 飛躍(비약), ㉡: 宣言(선언)

③ ㉠: 復案(복안), ㉡: 豫言(예언), ㉢: 草案(초안)

④ ㉠: 細胞(세포), ㉡: 循環(순환), ㉢: 草案(초안)

⑤ ㉠: 寄生(기생), ㉢: 分裂(분열)

02 ① 脚光(각광): 다리를 비추는 광선, 사회적 관심이나 흥미.

- ★ ② 妄言(망언):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
함. 또는 그 말.

③ 比肩(비견):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견줄. 또는 견주어짐.

④ 繁殖(번식): 불고 늘어서 많이 퍼짐.

⑤ 批評(비평): '1'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
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 '2' 남의 잘못을 드러내어 이리쿵
저리쿵 좋지 아니하게 말하여 퍼뜨림.

03 不長(부장)

- ★ ① 不生(불생)

③ 不擇(불택)

④ 不墮(불휴)

⑤ 不讓(불양)

※ '不'은 초성이 'ㄷ', 'ㄹ'인 한자 앞에서 대체로 '부'로 읽음.

※ 예외: 不實(부실)

04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束手無策(속수무책) 으로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을 말 한다.

05 地不長無名之草(지부장무명지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 세상에 나서 자라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가 치를 가지고 있음.

- ★ ① 角者無齒(각자무치): 뿔 달린 것은 이가 없다.

③ 心無主者, 其辭荒.(심무주자 기사황): 마음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거칠다.

④ 一語傷人, 痛如刀割.(일어상인 통여도할): 한마디 말
이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⑤ 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태산 불양토양 고능
성기대): 태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
룰 수 있다.

- 06 주어진 속담의 주제는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이다.
 ③ 鳥飛梨落(오비이락):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다.
 → 아무 관계도 없는 일들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
 ☆ ① 語不成說(어불성설):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음.
 ② 切齒腐心(절치부심):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④ 孤掌難鳴(고장난명): 한쪽 손바닥은 울기가 어려움.
 → 혼자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⑤ 寸鐵殺人(촌철살인):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음.
 → 조리가 없이 말을 이리궁저리궁 지껄임.

- 07 內不足者, 其辭煩, 心無主者, 其辭荒.(내부족자 기사번, 심무주자 기사황): 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번잡하고, 마음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거칠다.
 → 내면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핵심이 없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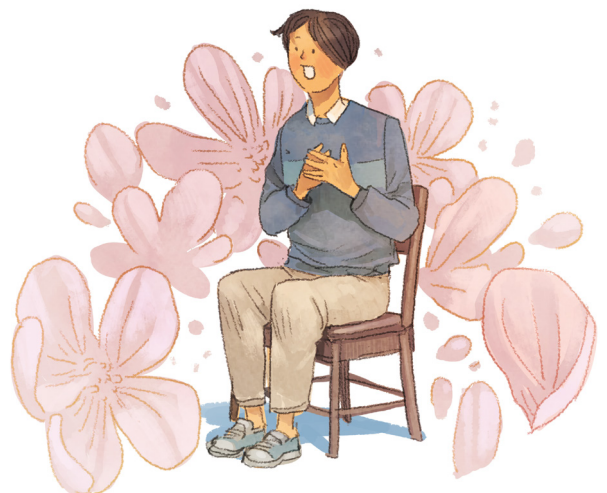
- 08 積功之塔, 不墮.(적공지탑 불휴): 공을 (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 ① 工(공) 장인 ② 主(주) 주인
 ④ 足(족) 발 ⑤ 惡(악) 악하다

- 09 寧測十丈水深(녕측십장수심): 차라리 열 길 물 깊이는 헤아릴 수 있다.
 ☆ ① 寧(녕): 차라리

- 10 一語傷人(일어상인)은 주술목 구조의 문장이다. 一語(한마디 말이[주어]) + 傷(남을[목적어]) + 人(상하게 하다.[서술어])
 ☆ 주술목 구조는 ‘주어 + 서술어 +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
 ※ 전문 풀이
 (가) 一語傷人, 痛如刀割.: 한마디 말이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 말로 주는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나) 天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 세상에 나서 자라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다) 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 河海, 不擇細流, 故能就其深.: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다. →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너그럽이 포용해야 크고 깊은 존재가 될 수 있음.

- 11 天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천불생무록지인 지부장무명지초):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 세상에 나서 자라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 ①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가 매우 어려움.
 → 寧測十丈水深, 難測一丈人心.
 ② 간단한 말로도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
 → 寸鐵殺人
 ③ 말로 주는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됨.
 → 一語傷人, 痛如刀割.
 ④ 정성을 다한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음.
 → 積功之塔, 不墮.

- 12 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 河海, 不擇細流, 故能就其深.(태산 불양토양 고능성기대 하해 불택세류 고능취기심)은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너그럽이 포용해야 크고 깊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글의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Ⅳ 일화로 세상을 보다

09 재치 있게 설득하기

실력 키우기

101쪽

- 01 ①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④ 08 **서답형** 친구가 크게 웃은 이유는 김 선생이 유머로 자신의 인색함을 재치 있게 지적했기 때문이다.

- 01 僞(위) 거짓
★ ② 佐(좌) 돕다
③ 淡(담) 맑다
④ 愧(괴) 부끄럽다
⑤ 亂(란) 어지럽다
- 02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성어는 茶飯事(다반사)이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이르는 말이다.
- 03 善談笑(선담소): 우스갯소리를 잘했다.
④ 善防(선방): 잘 막음.
★ ① 善惡(선악): 선함과 악함.
② 僞善(위선): 거짓 선.
③ 勸善(권선): 선을 권함.
⑤ 最善(최선): 가장 좋음.
- 04 適有群鷄(적유군계): 마침 여러 마리 닭이 있었다.
★ 適(적): 마침
- 05 본문 풀이 참조
- 06 不惜千金(불석천금): 천금을 아끼지 않는다.
※ 풀이 순서: 千-金-惜-不
- 07 借鷄騎還(차계기환): 닭을 빌려 타고 돌아가다.
- 08 친구가 크게 웃은 이유는 김 선생의 유머가 자신의 인색함을 재치있게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굳이 닭까지 잡아 대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킨 어색함 일수도 있고, 자신의 인색함에 대해 정색하며 화내지 않고 재치있는 유머로 대응해 준 친구에 대한 유쾌한 응답일 것이다.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글의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10 비유로 말하기

실력 키우기

109쪽

- 01 ② 02 ③ 03 ④ 04 ④ 05 ④
06 ⑤ 07 ① 08 **서답형** 이 문장은 “벼 싹이 말랐다”라고 풀이한다. 벼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한 사람이 일부러 싹을 뽑아 주었는데,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벼 싹이 말랐다.

- 01 助長(조장): 자라는 것을 도와줌.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 ① 成長(성장) ③ 延長(연장)
④ 長短(장단) ⑤ 班長(반장)
- 02 以心傳心(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 ① 人(인) 사람 ② 者(자) 사람
④ 情(정) 뜻 ⑤ 思(사) 생각
- 03 自舟中(자주중): 배 가운데로부터
★ 自(자): ~부터
- 04 墜於水(추어수): 물에 떨어지다.
★ 於(어): ~에
- 05 ※ 전문 풀이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칼이 배 안에서부터 물에 떨어지자 급히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 06 ㉠-㉣의 주체: 송나라 사람 / ㉥의 주체: 아들
※ 전문 풀이
송나라 사람 중에 그 벼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그것을 뽑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매우 피곤한 모양으로 돌아와서는 집안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내가 벼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아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더니 벼 싹이 말라 있었다.
- 07 芒芒然(망망연): 피곤한 모양
- 08 이 문장은 “벼 싹이 말랐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한 사람이 일부러 싹을 뽑아 주었는데, 그 행동 때문에 오히려 부리가 물 밖에 나와 말라죽은 것이다.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글의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11 관점을 넓혀 보기

실력 키우기

117쪽

01 ① 02 ② 03 ④ 04 ④ 05 ①
06 ② 07 ③ 08 **서답형** 여기서 유래한 성어는
‘三人成虎’이다. 속뜻은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것이다.

- 01 千慮一失(천려일실):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 → 슬기로운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에는 잘못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 ① 천편일률(千篇一律): 여럿이 개별적 특성이 없이 모두 엇비슷한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천신만고(千辛萬苦):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말.
④ 천우신조(天佑神助):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⑤ 천차만별(千差萬別): 여러 가지 사물이 모두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음.
- 02 尾生之信(미생지신): 미생의 믿음.
→ ① 약속을 굳게 지킴. ②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
- 03 期於梁下(기어양하): 다리 아래에서 약속하다.
★ 於(어): ~에서
- 04 抱梁柱而死(포양주이사):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다.
- 05 女子不來(여자불래): 여자가 오지 않았다.
※ 전문 풀이
미생이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여자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다.
- 06 王信之乎?(왕신지호):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 07 여기서 寡人(과인)은 魏王(위왕)이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 寡人(과인): (덕이) 적은 사람 →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말.
- 08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글의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IV 대단원 총괄 평가

120 - 121 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⑤ 05 ③
06 ③ 07 ④ 08 ② 09 ⑤ 10 ②
11 ② 12 **서답형** (가)와 (나)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다.

- 01 ㉠ 熟考(숙고), ㉡ 苦杯(고배), ㉢ 善防(선방)
- 02 耳食(이식): 듣기만 하고 맛을 얕. → 남의 말을 귀로만 듣고 넘겨짚어 그대로 믿어 버림.
- 03 ㉠ 心志(심지): 마음에 품은 의지.
㉡ 心地(심지): 마음의 본바탕.
- 04 是愧耳(시괴이): 이것을 부끄러워할 뿐이다.
★ 耳(이): ~할 뿐이다.
- 05 佐酒(도울 좌, 술 주): 술안주로 삼다
- 06 騎何物而還(기하물이환):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는가? - 의문형
- 07 予助苗長矣(여조묘장이): 내가 벼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 주었다.
★ 予(여): 나
- 08 夫市之無虎 明矣(부시지무호 명의): 무릇 시장에 호랑이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
★ 夫(부): 무릇
- 09 三人言而成虎(삼인언이성호): 세 사람이 말하여 호랑이를 만들다.
- 10 期(기) 기약하다, 약속하다
★ ① ㉠ 與(여): ~와 더불어 ③ ㉢ 至(지): 이르다
④ ㉣ 去(거): 가다 ⑤ ㉤ 而(이): ~하고
- 11 遽契其舟(거계기주): 급히 그 배에 새기다.
★ 契(계) 새기다 ≡ 刻(각) 새기다
① 入(입) 들어오다 ③ 助(조) 돕다
④ 劍(검) 칼 ⑤ 墜(추) 떨어지다
- 12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글의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V 한시, 마음을 노래하다

12 자연과 함께

실력 키우기

133쪽

- 01 ③ 02 ② 03 ② 04 ④ 05 ④
06 ④ 07 ③ 08 서답형 세속을 벗어난 자연 속
의 한가로운 삶.

01 築臺(쌓을 축, 대 대)

- ★ ① 區域 - 구역
② 漠然 - 막연
④ 礎石 - 초석
⑤ 環境 - 환경

02 桑田碧海(상전벽해):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 ① 分水嶺(분수령): 분수계가 되는 산마루나 산맥으로, 어떤 일이 한 단계 발전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전환점을 이르는 말.
③ 秩序整然(질서정연): 차례나 순서 따위가 잘 잡혀 한결 같이 바르고 가지런함.
④ 茫然自失(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음.
⑤ 溫故知新(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

03 春眠(춘면) V 不覺曉(불각효)

봄잠에 새벽인 줄 몰랐다.(깨닫지 못했다.)

- ★ 한시는 대체로 의미에 따라 5언시인 경우 2/3자, 7언시인 경우 4/3 자로 띄어 읽는다. 춘효(春曉)는 5언시이므로 2자, 3자로 띄어 읽는다.

04 處處聞啼鳥(처처문제조): 여기저기서 새소리 들려온다.

- ★ 한시 중 절구의 행을 '구'라고 하고 첫째 구를 기구, 둘째 구를 승구, 셋째 구를 전구, 마지막 구를 결구라고 한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둘째 구의 풀이이다.

※ 전문 풀이

봄잠에 새벽인 줄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새소리 들려온다.
밤새 비바람 소리에
꽃잎 떨어진 것이 얼마일까?

05 余(여)는 1인칭 '나'를 뜻하는 한자이다. 我(아), 予(여), 吾(오)는 모두 '나'를 뜻하는 한자이다.

- ★ ㄱ. 兒(아) 아이
ㄴ. 女(녀) 여자, 너

06 운자는 한시에서 정해진 자리에 쓰도록 규정된 글자로 운모가 일치하는 글자를 말한다. 보통 2구와 4구에 운자가 배치되는데 7언시의 경우 1구, 2구, 4구에 오기도 한다. 산중문답(山中問答)에서는 山(산), 閑(한), 間(간)이 운자로 쓰였다.

- ★ 운자는 운모(중성과 종성)가 일치하는 글자를 말한다.

07 '나'는 산속에서의 삶을 한가롭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다.

- ★ ① 1구에서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는가?'라고 묻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1구의 '問余'에서 누군가 '나'에게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누군가는 화자 자신일 수도 있다.
④ 3구에서 복숭아 꽃잎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묘사하였다.
⑤ 4구의 '非人間'에서 화자가 자신이 사는 곳을 사람들이 사는 곳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문 풀이

나에게 묻기를,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는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절로 한가하네.
복숭아 꽃잎 물에 흘러 아득히 떠내려가니,
따로 있는 천지이지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08 화자는 속세에서 벗어나 있으며 한가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은거의 삶을 살고 있다. 桃花는 이곳이 무릉도원 같은 이상향임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안락한 생활 마다하고 왜 이 궁벽한 산골에 사는가?"라고 물으니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빙긋이 웃을 뿐이다. 명예와 이익을 좇느라 분주한 속세와는 전혀 달리 한가롭고 즐거운 은거의 삶이 있음을 소박한 문답의 형식으로 아름답게 그려 냈다.

→ 이 시는 산속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는 시인이 평온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문답 형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을 질문에 답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그 대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다. 그 대답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며, 사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다. 산에서의 삶의 즐거움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때로는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답이 된다.

인정 답안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 살고 있다는 점과 한가롭고 즐거운 감정을 표현할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13 그리움의 편지

실력 키우기

141 쪽

- 01 ⑤ 02 ② 03 ① 04 ④ 05 ④
06 ④ 07 **서답형** 이 한자의 뜻은 ‘한’이다. 시에서 알 수 있는 그녀의 ‘한’은 ‘그리움’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08 ③

01 偏(편) 치우치다

- ★ ① 憎(증) 미워하다
② 沙(사) 모래
③ 何(하) 어찌
④ 博(박) 넓다

02 羞人/無語別(수인/무어별)

- ★ 5언시인 경우 대체로 의미에 따라 2/3자로 띄어 읽는다.

03 重門(중문): 겹 문

- ① 二重(이중): 두 겹
★ ② 輕重(경중): 가볍고 무거움.
③ 重量(중량): 무거움의 정도.
④ 重心(중심): 무거운 핵심.
⑤ 重要(중요): 귀중하고 요긴함.

04 泣向梨花月(읍향이화월): 배꽃에 걸린 달 바라보며 눈물 짓네.

05 無語別(무어별)은 5언시로, 여성인 시적 화자가 경험한 이별의 슬픔이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잘 표현되었다. 단, 이별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06 본문 풀이 참조

07 이 한자는 ‘한’이다. 시적 화자는 밤이 깊었는데도 잠 못들며 자신에게 한이 많다고 말한다. 그녀의 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녀는 그리워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채 그리워만 하고 있다. 안부를 알 수 없을 만큼 만나지 못했고 밤마다 꿈마다 그의 집 앞을 서성일만큼 그리워하고 있다. 시에서 알 수 있는 그녀의 ‘한’은 ‘그리움’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인정 답안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며 글의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08 ‘安否’는 ‘편안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축약이다. 安不安.

V 대단원 총괄 평가

144 - 145 쪽

- 01 ① 02 ③ 03 ⑤ 04 ⑤ 05 ③
06 ② 07 ④ 08 ④ 09 ④ 10 ③
11 ⑤ 12 **서답형** •시어: 別有天地(별유천지) / •이유: 무릉도원은 인간 세상을 초월한 이상향을 의미한다. (가) 시에서 표현된 ‘別有天地(따로 있는 천지)’도 이와 동일한 개념이다.

01 ㉠: 肅然(숙연)

- ㉡: 分水嶺(분수령)
㉢: 必然(필연)

02 青春(청춘): 푸른 봄날. →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런 시절.

- ★ ① 光日(광일): 빛나는 해.

② 愛日(애일): 「1」 사랑해야 할 햇빛이라는 뜻으로, 겨울의 낮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시일을 아낀다는 뜻으로,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날이 적음을 안타까워하여 하루라도 더 정성껏 봉양하려고 노력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

④ 青年(청년): 「1」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2」 성년 남자.

⑤ 春日(춘일): 봄날.

03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桑田碧海(상전벽해)이다. 봉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4 樓閣(다락 누, 누각 각)

- ★ ① 軌跡(궤적)

- ② 釋然(석연)
③ 礎石(초석)
④ 盤石(반석)

05 處處聞啼鳥(처처문제조): 여기저기서 새소리 들려온다.

- ★ 압운법: 한시에서 짝수 구 끝에 운자를 배치하는 법. 이 시의 경우, 4구 끝에 ‘少(소)’를 썼으므로 2구 끝에 少(소)와 운이 같은 글자만 쓸 수 있다. ※ 鳥(조) 새

※ 전문 풀이

봄잠에 새벽인 줄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새소리 들려온다.
밤새 비바람 소리에
꽃잎 떨어진 것이 얼마일까?

06 花落/知多少(화락/지다소)

- ★ 한시는 대체로 의미에 따라 5언시인 경우 2/3자, 7언시인 경우 4/3 자로 띄어 읽는다. 춘호(春湖)는 5언시이므로 2자, 3자씩 띄어 읽는다.

07 ※ 전문 풀이

열다섯 살 아리따운 소녀,
남부끄러워 말 못한 채 헤어지네.
돌아와 덧문 달아걸고서,
배꽃에 걸린 달 바라보며 눈물짓네.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기승전결(起承轉結)

- 기(起): 시상을 불러일으킴.
- 승(承): 일으킨 시상을 이어받음.
- 전(轉): 변화를 주어 전환함.
- 결(結):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08 (가)와 (나) 모두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① (가)와 (나) 모두 한 구를 이루는 글자의 수가 5글자 이므로 5언시이다.

② (가)와 (나) 모두 봄을 배경으로 한다.

③ (가)와 (나) 모두 압운법을 지켜 운자를 배치하였다.

※ (가): 曉(효), 鳥(조), 少(소)

(나): 別(별), 月(월)

⑤ (가)와 (나) 모두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을 쓰고 있다.

09 心自閑(심자한): 마음은 절로 한가하네.

★ 自(자): 저절로

10 ㄴ. 운자는 ‘何(하)’, ‘多(다)’, ‘沙(사)’이다.

ㄹ.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였다. 기구에서 일어난 감정이 점점 무르익어 절구에 이르러 ‘문 앞 돌길에 이미 모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과장된 표현을 쓰며 님에 대한 그리움을 극대화하였다.

★ ㄱ. (나)는 칠언시이다.

11 (나) 시와 능운 시의 공통적 정서는 그리움, 외로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

★ (나)는 이옥봉의 自述(자술)이다.

※ (나) 전문 풀이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십니까?
달빛 밝은 비단 창가에 저의 한도 많습니다.
만약 꿈속 혼령이 다닌 발자취가 있다면,
문 앞 돌길은 이미 모래가 되었을 것이옵니다.

12 무릉도원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 진(晉)나라 때 호남(湖南) 무릉의 한 어부가 배를 저어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수원지로 올라가 굴속에서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도 살기 좋아 그동안 바깥세상의 변천과 많은 세월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한다. (가) 시에서는 무릉도원을 ‘別有天地(별유천지)’라고 표현하였다.

※ (가) 전문 풀이

나에게 묻기를, 무슨 일로 푸른 산에 사는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절로 한가하네.
복숭아 꽃잎 물에 흘러 아득히 떠내려가니,
따로 있는 천지이지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

인정 답안 시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유는 무릉도원과의 공통점을 기술하면 정답으로 인정함.



Ⅵ 인물, 역사가 되다

14 황희의 깨달음

실력 키우기

157쪽

-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5 ①
06 ① 07 ④ 08 **서답형** 使牛聞之

- 01 役割(부릴 역, 벨 할), 苦役(쓸 고, 부릴 역)
★ ① 力(력) 힘 ② 時(시) 때
④ 事(사) 일 ⑤ 設(설) 베풀다
- 02 疏通(소통): 트여서 막히지 않고 잘 통함.
★ ① 小通(소통) → 없는 어휘.
③ 配慮(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주고 헤아림.
④ 排他(배타): 남을 배척함.
⑤ 寬容(관용):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또는 그런 용서.
- 03 寬容(관용)에 대한 설명이다.
★ ① 傾聽(경청): 귀를 기울여 들음.
② 相互(상호): 상대가 되는 이쪽과 저쪽 모두 혹은 함께.
③ 劃一(획일): 모두가 한결같아서 변함이 없음.
④ 憐憫(연민):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 04 ‘田父’는 ‘밭에서 일하는 사람’ 즉 농부(農夫)를 뜻한다.
★ ① 漁父(어부): 물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② 義父(의부): 의붓아버지.
④ 夫婦(부부):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⑤ 大田(대전): 우리나라 중부에 있는 시.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리는 곳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다.
- 05 公(공)은 황희 정승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다. ㉠-㉥ 중 황희를 가리키는 말은 ㉠이다.
- 06 與人에서 與는 어조사로 ~과/와로 풀이된다. 뒤에 人(사람)과 결합하여 ‘사람과’로 풀이한다.
- 07 勝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로 ‘이기다’라는 뜻 외에 ‘낫다’, ‘훌륭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 ㉡은 맥락상 두 소 중 어떤 것이 나은가를 묻고 있으므로 ‘낫다’의 의미로 해석한다. 이와 상대되는 뜻을 가진 한자는 ‘못하다’의 뜻을 가진 劣이다.
★ ① 細(세) 가늘다 ② 此(차) 이
③ 同(동) 한가지 ⑤ 無(무) 없다
- 08 使는 사동형 문장을 만드는 한자로 ‘~로 하여금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명사로 之가 쓰일 수 있다.

15 만덕의 나눔

실력 키우기

165쪽

-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①
06 ④ 07 ⑤ 08 **서답형** 관청에서 쌀을 받아간
사람들은 모두 나를 살려 준 사람은 만덕이라고 하였다. 만
덕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곡식을 사서 기근으로 죽어가던
제주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 살렸기 때문이다.

- 01 貿(무) 바꾸다
★ 貿易(무역): 서로 물건을 사고팔거나 교환하는 일.
① 枕(침) 베개 ③ 費(비) 쓰다
④ 頌(송) 기리다 ⑤ 募(모) 모으다
- 02 耽羅(탐라)는 ‘제주도’의 옛 이름이다.
- 03 於是萬德, 捐千金貿米. 陸地諸郡縣棹夫, 以時至. 萬德, 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로 바꾸니, 육지의 여러 군현의 뱃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렀다. 만덕이 십 분의 일을 취하여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실어 보냈다.
- 04 時(시): 알맞은 때 - 適時(적시): 알맞은 때
★ ① 수시(隨時): 일정하게 정하여 놓은 때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름.
② 일시(一時): 잠깐 동안.
③ 즉시(卽時):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⑤ 불시(不時): 뜻하지 아니한 때.
- 05 取十之一 以活親族: 십 분의 일을 취하여 친족을 살린다.
- 06 集官庭如雲 관청의 뜰에 구름처럼 모여들다.
★ 如(여): ~(와)과 같다.
- 07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관청에서 그 완급을 조절하여 그것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 08 男若女, 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남자와 여자들이 나가서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고 모두 나를 살려 준 사람은 만덕이라고 하였다.
인정 답안 본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기근의 어려움에 있던 제주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주었다는 기술이 포함되면 정답으로 인정함.

16 안중근의 외침

실력 키우기

173쪽

- 01 ① 02 ⑤ 03 ③ 04 ② 05 ④
06 ④ 07 ⑤ 08 **서답형**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
며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다.

01 伊(이) 저 - 夷(이) 큰할

- ★ ② 與(여) 더불어 - 舉(거) 들다
③ 興(흥) 일어나다 - 學(학) 배우다
④ 裝(장) 꾸미다 - 像(상) 형상
⑤ 隊(대) 무리 - 際(제) 사이

02 擧는 ‘들다’, ‘행하다’, ‘선발하다’,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다.

- ㄷ. 擧手(거수)의 擧는 ‘들다’의 뜻이다.
ㄹ. 列擧(열거)의 擧는 ‘들다’의 뜻이다.
★ ㄱ. 舉行(거행)의 擧는 ‘행하다’의 뜻이다.
ㄴ. 科擧(과거)의 擧는 ‘선발하다’의 뜻이다.

03 ㉠: 의전(儀典)

- ㉡: 국제(國際)
㉢: 선거(選舉)
★ ① 파견(派遣)
② 동맹(同盟)
④ 과거(科擧)
⑤ 천거(薦擧)

04 설명은 소진의 합종(合從)과 장의의 연횡(連橫)이다. 이 내 용을 담은 성어는 합종연횡(合從連橫)으로 이해관계에 따 라 뭉치고 흩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 ★ ① 以夷制夷(이이제이):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
으로,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어함을 이르는 말.
③ 唇亡齒寒(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
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④ 男負女戴(남부여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
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友邦同盟(우방 동맹):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끼리의 동맹.

05 竊識之(마음속 절, 알 식, 그것 지)

06 胸腹(흉복)은 가슴과 배를 뜻하며 같은 성분의 한자가 나란 히 놓여 이루어진 병렬 구조의 어휘이다.

談笑(담소): 웃고 이야기함. - 병렬 관계

- ★ ① 義舉(의거): 의로운 행동, 의롭게 행동함. - 수식 관계
② 友邦(우방): 친한 나라. - 수식 관계
③ 國際(국제): 나라 사이, 나라 사이에 관계됨. - 수식 관계
⑤ 平日(평일): 평소같은 날, 보통의 날. - 수식 관계

07 ‘한국에서 만든 옷’을 한자로 옮기기 위해 의미 단위로 나누 면 ‘한국’, ‘만들다’, ‘옷’이다. 각각 韓(우리나라), 製(짓다, 만 들다), 衣(옷)이다. 이 세 한자를 조합하여 밑줄 친 말을 옮기 면 韓製衣이다.

08 就刑 談笑如平日: 형장에 나아가니 말하고 웃는 태도가 평소와 똑같았다.

→ 안중근 의사는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도 단순히
신념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진정한 용기와 의연함을 보여주었
다. 형장에 나아가기 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자신의 신념을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희생을 떠올리며 의연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그
의 모습은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중요시한, 국가와 민
족을 위한 자아의 초월을 보여준다. 안중근 의사는 단순히 나
라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그
의지를 실천에 옮겼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
이 담담히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강한 국가애
와 민족을 위한 사명감 덕분일 것이다. 그의 마지막 웃음과 담
담한 말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
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의 상징이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로움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다.

인정 답안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행동하는 모습과 이와 관련한 용
기 있는 성격을 드러나게 하면 정답으로 인정함.

※ 전문 해석

안중근이 평소 이등(박문)을 보지 못했으나, 단지 일찍이 그
의 작은 사진을 보고 마음속에 기억해 두고 있었다. 이에 군
대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총을 들고 그에게 세 발을 쏘
니, 모두 이등의 가슴과 배에 맞아 이등이 드디어 죽었다. 안중
근은 이등이 땅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을 들어 ‘대한 만세’
를 크게 외쳤다. 죽는 날에 이르러 양장을 벗고 한국에서 만든
옷으로 갈아입고 형장에 나아가니, 말하고 웃는 태도가 평소
와 똑같았다.

- 01 ② 02 ① 03 ④ 04 ⑤ 05 ②
06 ⑤ 07 ③ 08 ⑤ 09 ② 10 ③
11 ③ 12 **서답형** 皆中伊藤胸腹, 모두 이등의 가슴과
배에 맞았다.

- 01 現役(현역): 현재 어떠한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役割(역할): 영화나 연극 따위에서 배우가 맡아서 하는 소임.
- 02 儀典(의전):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 ② 獻身(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③ 活氣(활기):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
④ 配慮(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⑤ 容恕(용서):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 줌.
- 03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率先垂範(솔선수범)으로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말한다.
- 04 ㉔ 此(이 차)는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상대적인 뜻은 ‘저’로 彼가 그 뜻을 가지고 있다.
★ ① ㉔ 公은 황위를 높여 부르는 말로 쓰였다.
② ㉔ 之는 그것으로 앞서 나온 귀에 대고 말한 행동을 가리킨다.
③ ㉔ 物은 사물을 뜻하는 말로 사람이 아닌 소들을 가리킨다.
④ ㉔ 人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다.
- 05 長短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장점과 단점’을 의미한다.
- 06 ※ 전문 해석 참조
옛날에 황희 정승이 벼슬하기 전에 길을 걷다가 길가에서 쉬었다. 농부가 두 마리 소에 멍에를 씌우고 밭 가는 것을 보고, 물어 말하였다. “두 마리 소 중 어떤 것이 나은가?” 농부가 대답하지 않고 밭 갈기를 멈추고 와서 귀에 대고 속삭이며 말하였다. “이 소가 낫습니다.” 공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하는가?” 농부가 말하였다. “비록 가축이라도 그 마음은 사람과 같습니다.” “이것이 나으면 저것은 못한 것이니, 소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한다면 어찌 불평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공이 크게 깨닫고 마침내 다시는 남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 07 陸地諸郡縣棹夫 以時至: 육지의 뱃사람들이 때에 맞춰서 이르렀다.

※ 전문 해석

제주에 큰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베고 죽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로 바꾸니, 육지의 여러 군현의 뱃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렀다. 만덕이 십 분의 일을 취하여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실어 보냈다. 굶주린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관청의 뜰에 구름처럼 모여드니, 관청에서 그 완급을 조절하여 그것을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남자와 여자들이 나가서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고 모두 나를 살려 준 사람은 만덕이라고 하였다.

- 08 만덕이 십분의 일(十一之一)을 친족을 살리는 데 쓰고 그 나머지를 관청으로 옮겼다고 하였으므로 그 나머지는 십분의 구(十之九)가 된다.

★ 분수를 나타낼 때는 분모와 분자 사이에 之를 넣음.

- 09 浮黃者(부황자)는 부황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데, 부황(浮黃)은 오래 굶주려서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을 말한다. 즉 ‘굶주린 사람’을 가리킨다.

- 10 素(소) 본디 / 小(소) 작다

★ ① 伊(이) 저

② 惟(유) 생각하다

④ 像(상) 형상

⑤ 識(식) 알다

- 11 서양식 옷이나 복식을 洋裝(양장)이라고 하며, ‘벗다’의 뜻을 가진 한자는 脫(탈)이다. ‘서양식 옷을 벗다’는 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술목 관계를 활용하여 술어를 먼저 쓰고 목적어를 나중에 쓰므로 脫洋裝으로 옮길 수 있다.

- 12 乃披軍隊而前, 舉槍射之三發, 皆中伊藤胸腹, 伊藤遂死.(내피군대이전 거창사지삼발 개중이등홍복 이등수사): 이에 군대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총을 들고 그에게 세 발을 쏘니, 모두 이등의 가슴과 배에 맞아 이등이 드디어 죽었다.

→ 이등이 죽은 원인은 앞서 나온 내용인 안중근이 총을 쏘아 이등의 가슴과 배에 모두 맞았었기 때문이다.

인정 답안 정답에 해당하는 어구를 정확하게 쓰고 이를 해석하면 정답으로 인정함.

VII 고전에 길을 묻다

17 사람을 대하는 마음

실력 키우기

189쪽

- 01 ③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④ 07 **서답형** 그중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고쳐야 한다.

01 行列(항렬)

★ 行이 항렬, 줄이나 대열이란 뜻으로 쓰일 경우 ‘항’으로 읽는다.

- ① 同行(동행) ② 面牆(면장)
④ 隨行(수행) ⑤ 耳順(이순)

02 대화에서 삼촌이 60번째 생일을 맞이한 것으로 보아 올해 60세인 것을 알 수 있다. 60세를 나타내는 어휘는 ‘耳順(이순)’이다.

- ★ ① 不惑(불혹) ② 而立(이립)
④ 志學(지학) ⑤ 薄氷(박빙)

03 知天命(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다.

- ★ ① 而立(이립): 뜻이 확고하게 서다.
② 從心(종심): 마음을 좇다.
③ 志學(지학): 배움에 뜻을 두다.
④ 耳順(이순): 귀가 순해지다.

04 논어에서 비롯한 나이에 대한 어휘를 어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志學	而立	不惑	知天命	耳順	從心
(지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
15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05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서술어의 뒤에 위치하지만,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그 대명사가 서술어 앞에 온다. 대명사가 서술어보다 앞에 있는 경우를 찾으면 己(대명사)가 知(서술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06 대화에서 B의 말에 대한 A의 대답은 남을 배려하고 돕는 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뜻을 가진 문장을 찾으면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세게 하며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을 도달하게 하라)’가 가장 적절하다.

07 그중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고쳐야 한다.

18 천리마에게 필요한 것

실력 키우기

197쪽

- 01 ① 02 ④ 03 ③ 04 ② 05 ①
06 ⑤ 07 ⑤ 08 **서답형**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인재가 없다고만 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01 沒頭(빠질 물, 머리 두):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02 不撤晝夜(불철주야):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음.

- ★ ① 祕策(비책): 아무도 모르게 숨긴 계책.
② 練磨(연마): 돌이나 쇠붙이 따위의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갈고 닦음.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
③ 開拓(개척): 거친 땅을 일구어 논, 밭을 만듦. 새로운 분야, 운명 따위를 열음.
⑤ 窮餘之策(궁여지책):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

03 한자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사자성어는 窮餘之策(궁여지책)으로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을 말한다.

04 懷柔策(회유책): 적당한 양보를 통하여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계책. 策勵(책려): 책찍질하여 독려함.

05 食은 ‘음식’, ‘먹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식’으로 읽고, ‘먹이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사’로 읽는다. 글의 맥락상 ㉠과 ㉡은 모두 ‘먹이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로 읽어야 한다.

06 執策而臨之曰: “天下無良馬.”: 채찍을 잡고 말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 → 사람들은 천리마를 앞에 두고도 세상에 좋은 말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07 감탄의 어조 감탄사를 쓰거나 감탄의 어기를 쓰는 방법이 있다. 본문에서는 감탄사 嗚呼를 써서 감탄을 나타냈다.

08 글을 지은 한유는 인재를 천리마에 비유하여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우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인정 답안 인재를 천재에 비유하여 현실을 비판한다는 내용을 서술할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01 ①	02 ⑤	03 ⑤	04 ②	05 ⑤
06 ③	07 ⑤	08 ②	09 ②	10 ④
11 ⑤	12 서답형	감탄문,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 01 懷柔策(회유책):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하게 하는 계책.
窮餘之策(궁여지책):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
★ ② 術(술) 꾀
③ 秘(비) 숨기다
④ 力(력) 힘
⑤ 散(산) 흩어지다
- 02 素質(소질):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또는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
★ ① 啓發(계발):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줌.
② 開拓(개척): 거친 땅을 일구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 새로운 영역, 운명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 나감.
③ 策勵(책려): 책찍질을 하듯 격려함.
④ 沒頭(몰두):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 03 B가 말한 내용 중 ‘오해가 생길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지 않을까 계속 조심’한다는 내용과 가장 어울리는 성어는 如履薄氷(여리박빙: 얼음을 밟는 듯 조심하는 모양)이다.
★ ① 知天命(지천명):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다. 50세를 이르는 말.
② 自強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않음.
③ 發憤忘食(발분망식):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함.
④ 不撤晝夜(불철주야):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음.
- 04 耳順(이순)은 60세를 나타낸다.
- 05 不撤晝夜(불철주야):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음.
★ ① 自強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않음.
② 巧言令色(교언영색):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③ 發憤忘食(발분망식):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함.
④ 如履薄氷(여리박빙):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6 鄰(린) 이웃

- 07 (마)는 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모두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시된 성어와 관련이 깊다.
★ 三人行, 必有我師焉. 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改之.: 세 사람이 (길을) 감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중에 선한 자를 가려서 따르고, 선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내 허물을) 고쳐야 한다.
※ 전문 해석
(가):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나): 여러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고,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라): 무릇 ‘인’한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서게 하며,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을 도달하게 한다.
- 08 人은 ‘사람’, ‘남(다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에서는 ‘남’으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자기’, ‘자신’을 뜻하는 한자를 찾아야 한다. ‘己’은 문장에서 ‘자신’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 09 見은 ‘보다’의 뜻을 가질 때 ‘견’으로 읽지만 ‘뵈다’, ‘드러나다’의 뜻을 가질 때에는 ‘현’으로 읽는다.
- 10 善은 ‘좋다’, ‘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맥락상 ‘좋다’로 풀이한다.
★ 天下 無良馬.: 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
- 11 雖有千里之能, 食不飽, 力不足, 才美不外見.: 비록 천 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못하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의 뛰어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전문 해석 참조
세상에 백락이 있는 뒤에야 천리마가 있으니,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백락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 천 리를 가는 것은 한 끼에 어떤 때는 곡식 한 섬을 다 먹는데, 말을 먹이는 자가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먹인다. 이 말이 비록 천 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못하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의 뛰어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또 보통 말과 같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으니, 어찌 그것이 천 리를 갈 수 있기를 구하겠는가? 채찍을 잡고 말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 하니 아! 참으로 말이 없는 것인가? 참으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 12 嗚呼! 其真無馬耶?: 아! 참으로 말이 없는 것인가?
인정 답안 감탄문을 정확하게 쓰고, 감탄문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함.

시험 완벽 대비 문제 1회

206-211쪽

- 01 ① 02 ③ 03 ④ 04 ③ 05 ④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④
11 ④ 12 **서답형** 鷄: 기본 뜻은 닭이며 여기에서는 ‘평범한 것’을 의미한다. 鶴: 기본 뜻은 학이며 여기에서는 ‘특별한 것’을 의미한다. 13 ② 14 ② 15 ④
16 ⑤ 17 ④ 18 **서답형** 외 손바닥은 소리가 날 수 없다는 것은 혼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협력의 소중함’이라고 할 수 있다. 19 ① 20 ④ 21 ⑤ 22 ②
23 ③ 24 **서답형** 태산은 작은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것을 이룰 수 있었다. 25 ③ 26 ①
27 ④ 28 ③ 29 ④ 30 **서답형** 물에 들어 가서 검을 찾았으나 결국 검은 찾지 못했다. 31 ④
32 ⑤ 33 ③ 34 ① 35 **서답형** 피곤한 모양으로 돌아갔다.

01 ㉠ 逮捕(체포), ㉡ 治療(치료), ㉢ 無難(무난)

02 一舉兩得(일거양득): 하나를 들어 열을 얻음.

03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은 ‘상형’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한자는 丘(언덕 구), 穴(구멍 혈) 등이 있다.

- ★ ① 本(본) 근본 - 지사 ② 甘(감) 달다 - 지사
③ 尖(첨) 뾰족하다 - 회의 ⑤ 囚(수) 가두다 - 회의

04 慧(혜) 지혜

- ★ ① 板(판) 널 ② 周(주) 두루
④ 畲(함) 머금다 ⑤ 程(정) 길

05 家家户户(가가호호): 한 집 한 집마다.

06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은 말과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07 우정과 관련된 성어

- 伯牙絕絃(백야절현):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음.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 管鮑之交(관포지교): 관중과 포숙의 사귀.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 金蘭之交(금란지교): 쇠보다 날카롭고 난초같이 향기로운 맺음. →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두터운 우정.

08 斷機之戒(단기지계): (짜던) 베를 끊은 경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를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

09 不恥下問(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음.

※ 풀이 순서: 아랫사람에게 - 묻기를 - 부끄럽게 여기지 - 않음.

10 愚公移山(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 ① (가) 登龍門(등용문)

- ② (나) 守株待兔(수주대토)
③ (다) 塞翁之馬(새옹지마)
⑤ (마) 畫蛇添足(화사첨족)

11 畫蛇添足(화사첨족):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12 群鷄一鶴(군계일학) 여러 닭 가운데서 하나의 학. →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 여기서 닭은 평범한 사람을, 학은 뛰어난 사람을 비유함.

13 背水之陣(배수지진) 물을 등지고 치는 진.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맞섬.

14 四面楚歌(사면초가)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말한다.

15 兔死狗烹(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삶아 먹힘. →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

16 鳥飛梨落(오비이락):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다. → 아무 관계도 없는 일들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

17 寧測十丈水深, 難測一丈人心.(녕측십장수심 난측일장인심): 차라리 열 길 물 깊이는 헤아릴 수 있으나, 한 길 사람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가 매우 어려움.

18 孤掌難鳴(고장난명): 한쪽 손바닥은 울기가 어렵다. → 혼자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정 답안 ‘협력’과 의미가 통하는 단어는 정답으로 인정함.

- 19 橫說豎說(횡설수설): 가로로 말하다가 세로로 말함.
→ 조리가 없이 말을 이리저리궁 지껄임.
- 20 一語傷人, 痛如刀割(일어상인 통여도할): 한마디 말이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다.
→ 말로 주는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 如(여) ~와 같다
- 21 內不足者, 其辭煩, 心無主者, 其辭荒(내부족자 기사번 심무주자 기사황): 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번잡하고, 마음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이 거칠다.
→ 내면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핵심이 없고 정리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 足(족) 넉넉하다 / 豐足(풍족): 매우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음.
① 手足(수족): 손과 발을 아울러 이르는 말. 자기의 손이나 발처럼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四足(사족): 짐승의 네발. 또는 네발 가진 짐승.
③ 牛足(우족): 소의 발.
④ 失足(실족): 발을 헛디딤. 행동을 잘못함.
- 22 角者無齒(각자무치): 뿔 달린 것은 이가 없다.
→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이나 재주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 없음.
- 23 天不生無祿之人, 地不長無名之草(천불생무록지인 지부장무명지초): 하늘은 복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 세상에 나서 자라는 모든 것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 24 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태산 불양토양 고능성기대):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다.
→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너그러운 포용해야 크고 깊은 존재가 될 수 있음.
★ 원인: 不讓土壤 -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음.
결과: 能成其大 -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음.
- 25 適有群鷄(적유군계): 마침 여러 마리 닭이 있어
★ 適(적):마침
- 26 앞 문장에서 김 선생이 當斬吾馬, 佐酒.(마땅히 내 말을 베어 술알주로 삼겠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므로 빈 칸에는 馬(말 마)가 들어가야 한다.
★ 斬一馬, 騎何物而還?: 한 마리(뿐인) 말을 베면 무엇을 타고 돌아가려는가?

- 27 친구가 크게 웃은 이유는 김 선생이 말을 잡아 안주로 삼고 마당에 있는 닭을 타고 가겠다고 재치있게 말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색함을 재치있게 지적한 친구의 유머에 화답한 것이다.
★ 大笑(대소) 크게 웃음.
- 28 楚人有涉江者, 其劍, 自舟中, 墜於水(초인유섭강자 기검 자주중 추어수):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칼이 배 안에서부터 물에 떨어졌다.
★ 自(자): ~부터
- 29 舟止, 從其所契者, 入水求之(주지 종기소계자 입수구지):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 之(지):그것→칼
- 30 入水求之(입수구지):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주인공은 검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배는 옮겨졌고 검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 31 其人(기인): 집안사람들
- 32 予助苗長矣(여조묘장위): 내가 벼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 주었다.
★ 長 자라다 / 成長(성장) 자라서 커짐.
① 家長(가장): 집안의 가장 어른.
② 長身(장신): 키가 큰 몸.
③ 長足(장족): 긴 다리. 사물의 발전이나 진행이 매우 빠름.
④ 長短(장단): 길고 짧음. 장점과 단점.
- 33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기자추이왕시지 묘죽고의): 그 아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더니 벼 싹이 말라 있었다.
- 34 글과 관련된 성어는 助長(조장)이다. 조장은 자라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것을 말한다.
★ ② 刻舟求劍(각주구검)
③ 以心傳心(이심전심)
④ 角者無齒(각자무치)
⑤ 群鷄一鶴(군계일학)
- 35 芒芒然歸(망망연귀): 피곤한 모양으로 돌아오다.

시험 완벽 대비 문제 2회

212~216쪽

-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5 ②
06 ⑤ 07 ① 08 ③ 09 ③ 10 ②
11 ② 12 **서답형** 이 시의 공통된 정서는 그리움이다.
(가)는 말없이 헤어지고 달을 향해 우는 장면에서, (나)는
기구에서 안부를 묻고 문 앞에 돌 길이 모래가 되었다는 표
현 속에서 상대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① 14 ⑤ 15 ④ 16 ⑤ 17 ①
18 **서답형** 其餘盡輸之官, 그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실어
보냈다. 19 ⑤ 20 ④ 21 ③ 22 ⑤
23 ② 24 **서답형** 擇, 선택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내 허
물)를 고쳐야 한다. 25 ⑤ 26 ① 27 ⑤
28 **서답형** 사마자, 말을 먹이는 자 29 ③
30 해설 참조

- 01 抱梁柱而死.(포양주이사):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다.
★而: ~하고
- 02 尾生, 與女子, 期於梁下.(미생 여여자 기어양하): 미생이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 03 尾生之信(미생지신): 미생의 믿음 → ① 약속을 굳게 지킴.
②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
★① 助長(조장)
② 鐵面皮(철면피)
③ 刻舟求劍(각주구검)
⑤ 漸入佳境(점입가경)
- 04 言(언)은 ‘말하다’의 뜻을 가진 한자로 이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曰(왈)이다.
- 05 王信之乎?(왕신지호):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인 의문문이다.
- 06 ①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로 ‘밝다’의 뜻 외에 ‘똑똑하다’,
‘명료하다(분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 夫市之無虎明矣.(부시지무호 명의): 무릇 시장에 호랑이
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 07 曉(효)는 ‘새벽’,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시에서는 ‘새
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08 (나)는 이백의 ‘산중문답’이라는 시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2구의 ‘笑而不答心自閑’에서
그 정서를 또렷하게 느낄 수 있다.

- 09 碧山은 푸른 산이라는 뜻으로 화자가 떠나온 속세와 반대되
는 이미지 즉, 자연을 상징하고 있다.
- 10 절구시는 기, 승, 전, 결의 시상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첫 번째 구부터 기구, 승구, 전구, 결구라고 한다. 승구
는 羞人無語別(수인무어별)을 말한다.
- 11 若使夢魂行有跡.(약사몽혼행유적): 만약 꿈속 혼령이 다
닌 발자취가 있다면
★若使: 만일 ~라면
- 12 (가)와 (나) 모두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으며 (가)는 어린
소녀가 말없이 헤어지고 집에 돌아와 달을 향해 울고 있는 모
습 속에서 (나)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돌이 모두 닳아 모래
가 된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인정 답안 그리움과 비슷한 정서(애타움, 보고 싶어함 등)를 제시하
는 경우, 시어나 문장에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경우를 서
술할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 13 輟耕而至는 ‘철경이지’로 읽는다.
- 14 문맥상 그 마음은 사람 ‘과’ 같다. 예 해당하는 어조사를 찾으면
①에 적절한 어조사는 與(여)이다.
★① 哉(재): 문장의 끝에서 강조나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② 乎(호):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거나 ‘~보다’, ‘~에’로 풀이
된다.
③ 之(지): 대명사로 ‘그것’, ‘그 사람’ 등으로 쓰이거나 어조사
로 ‘~의’, ‘~하는’으로 풀이된다.
④ 于(우): ‘~보다’, ‘~에’로 풀이된다.
- 15 황희는 농부가 자신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
며 왜 자신의 귀에 대고 말한 것인지를 되물었다.
★何以附耳相語?(하이부이상어):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
하는가?
- 16 緩急(느릴 완, 급할 급)은 서로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로 이루어진 어휘이다.
- 17 十之一(십지일)은 ‘열 중의 하나’를 뜻하는 말로 $\frac{1}{10}$ 로 표
현할 수 있다.
- 18 之(지)는 浮黃者(부황자)가 들은 말을 가리키며, 앞의 ‘餘
盡輸之官(여진수지관)’이 그 대상이 된다. 이를 풀이하면 ‘
그 나머지는 모두 관아에 실어 보냈다.’이다.

- 19 ㉠ 胸腹(흉복)은 ‘가슴과 배’를 뜻하는 말로 대등한 위상의 한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병렬 구조이다. 이와 비슷한 짜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 談笑(담소)로 ‘말하다’와 ‘웃다’가 대등한 관계로 나열되어 있다.

★ ㉠ 攀手(거수): 술목 구조

② 小像(소상): 수식 구조

③ 萬歲(만세): 수식 구조

④ 洋裝(양장): 수식 구조

- 20 重根은 伊藤이 쓰러진 것을 보고 손을 들어 ‘대한 만세’를 외쳤다.

※ 전문 해석 참조

안중근이 평소 이등(박문)을 보지 못했으나, 단지 일찍이 그의 작은 사진을 보고 마음속에 기억해 두고 있었다. 이에 군대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총을 들고 그에게 세 발을 쏘니, 모두 이등의 가슴과 배에 맞아 이등이 드디어 죽었다. 안중근은 이등이 땅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을 들어 ‘대한 만세’를 크게 외쳤다. 죽는 날에 이르러 양장을 벗고 한국에서 만든 옷으로 갈아입고 형장에 나아가니, 말하고 웃는 태도가 평소와 똑같았다.

- 21 뒷문장에서 한국에서 만든 옷으로 고쳐 입었다는 것으로 보아 맥락상 앞에서는 洋裝을 벗는다는 뜻의 한자(脫: 벗을 탈)가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 22 (다)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여도 살피고 좋아한다고 하여도 살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판단해야함을 말하고 있다. 때문에 三人成虎(삼인성호)와 뜻이 통하는 바가 있다.

★ 衆惡之, 必察焉, 衆好之, 必察焉.(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 여러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며,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 三人成虎(삼인성호):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

★ ㉠(가)는 ‘덕불고 필유린’이라고 읽는다.

② (가)는 덕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움이 있다는 뜻이다.

③ (나)는 평서형 문장이다.

④ (나)는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라는 뜻이다.

- 23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부인자 기욕입이입인 기욕달이달인): 무릇 ‘인’한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서게 하며,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을 도달하게 한다.

→ 남을 배려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 24 其不善者 앞에 ‘擇’이 생략되어 있다.

인정 답안 생략된 擇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의미에 맞게 잘 풀이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 25 ㉠은 천리마, ㉡은 말중에 천리를 가는 것으로 곧 천리마를 뜻한다. ㉢은 ‘이 말’로 앞의 말중에 천리를 가는 것을 가리키므로 천리마이다. 그러므로 ㉠, ㉡, ㉢은 모두 같은 천리마를 가리키는 말이다.

★ ㉢은 보통 말이다.

- 26 安求其能千里也?: 어찌 그것이 천 리를 갈 수 있기를 구하겠는가?

★ 安(안): 어찌

- 27 천리마는 가끔씩 한 번에 곡식 한 섬을 모두 먹는다고 하였으며 이는 보통말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 ㉠ 伯樂(백락)은 말을 감별하는 사람이다.

② 천리마를 기르는 방법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③ 천리마의 부재가 아닌 백락의 부재를 문제시하고 있다.

④ 천리마는 항상 존재하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 28 食은 ‘먹다’의 뜻일 때는 ‘식’으로 읽고, ‘먹이다’의 뜻일 때는 ‘사’로 읽는다. 여기서는 문맥상 ‘먹이다’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로 읽어야 한다.

★ 或盡粟一石, 食馬者, 不知其能千里而食也.: 말을 먹이는 자가 그 말이 천 리를 갈 수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먹인다.

- 29 감탄문은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 嗚呼! 其真無馬耶?(오호 기진무마야): 아! 참으로 말이 없는 것인가?

- 30 이 이야기에서 백락은 능력 있는 말을 알아보는 사람을 의미하고, 천리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존재를 의미한다.

→ 당나라의 한유는 당시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탄을 천리마에 빗대어 글로 표현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 천리마는 보통 말과는 달라 보통 말처럼 다루면 오히려 보통 말보다도 못한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삶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을 역설하고 있다.

인정 답안 백락과 천리마가 각각 비유하는 것을 서술할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